

1883~1910년 한국의 ‘종교(宗教)’ 용례 특이성: 한국 ‘종교’ 개념 형성사 재고*

심형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종교’라는 말은 일본에서 ‘religion’의 번역어로 채택되어 동아시아에 확산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또 ‘종교’라는 용어는 그 새로운 뜻에 서구의 근대적 ‘religion’ 개념을 담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 용어의 많은 사용례를 보면 그 낱글자의 의미를 따라 ‘최고의 가르침’ 혹은 ‘국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1883년부터 1910년까지 신문, 사전 등에서 쓰인 사례들을 보면, ‘religion’의 번역어로서 ‘종교(宗教)’가 우세해지는 것이 1910년 전후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19세기에 ‘종교’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을 근거로 근대적 종교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그런 면에서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종교’ 개념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교(敎)’나 ‘도(道)’ 개념에 비추어 이해되었다. 따라서 ‘종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근대적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의 나라들(일본, 중국, 베트남)에서도 공히 발견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종교 개념 형성사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종교, 교(敎), 도(道), 국교, 근대적 개념, 개념의 형성사

I. 서론: 근대성 테제와 한국의 종교 개념

‘종교’라는 말은 19세기 말에 동아시아에서 등장한 새로운 말이었다.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던 표현인데, 영어의 ‘religion’의 대역어로 일본에서 고안된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원출처인 ‘religion’ 개념을 활용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종교’라는 말이 사용되면서 한국에서 근대적인 종교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시각은 그래서 논리적이면서도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1004).

느끼기 어려웠다.

한국 종교 개념 형성의 테제는 서구의 religion 개념이 일본 등을 통해 번역된 ‘종교(宗教)’라는 말로 한국에 유입되면서 근대적 종교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 정착하게 된 것인데, 그 개념이 근대성의 체제 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장석만, 1992). 이러한 시각은 정진홍도 보여 준 바 있다(정진홍, 2003: 165-172). 한국인에게 없던 개념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한국의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고 본다.

반면에 ‘종교’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개념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제시되었다. 김중서는 서구의 religion 개념과는 다른 고유의 ‘종교’ 개념이 발전되어 오다가 개화기에 이르러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시각을 보여 준다(김중서, 2001; 2005; 2006). 핵심적 내용은 ‘미분화’ 된 종교 개념이 근대적 개념을 만나 순수한 형태로 분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전통적 ‘교’나 ‘도’의 관념과 ‘종교’의 질적 차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근대성과 종교 논의에서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분명 과거 관념의 관성을 고려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기존의 한국 종교 개념사 논의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조현범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조현범, 2004; 2018). 그는 장석만 등의 연구에서 종교 개념이 실체화되는 문제, 이념적 유형화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했다.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바로 최초의 ‘宗教’ 용례이다. 장석만이 근대적 종교 개념의 최초 용례로 이야기한 바 있는 1883년 『한성순보』에 실린 ‘종교’라는 표현은 ‘근대적 종교 개념’의 특성을 잘 보여 주지 않는다. 다만 ‘국가’와 ‘종교’의 관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종의 ‘존성윤음’ 등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사례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각 사례들은 ‘각 나라에는 사람들을 교화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로서의 종교’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유교’를 말했다.¹

¹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방원일(2021)이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앞서서 2019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근대 한국의 종교 개념사 자료 집성』(조현범, 이유나, 방원일, 심형준)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이기도 하다(22, 35, 169, 221쪽에서는 ‘나라의 최고 가르침’ 혹은 ‘최고 가르침’으로 46, 48, 58, 59, 130, 169, 183쪽에서는 ‘나라의 으뜸 가르침’ 혹은 ‘으뜸 가르침’으로 쓰이는 종교 용례를

이러한 사례들은 religion의 역어로서 '종교'라는 표현이 유적 범주로서가 아니라 기존의 가치체계(유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향후 '유교 비종교론'이 대두되지만, 이 역어가 수입된 초창기에는 그 점이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전통적인 '교(敎)'나 '도(道)'의 관념이 '종교'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 개념은 기존 논의에서는 대체로 인민 교화적 종교 개념의 사용례로 이해되었다(장석만, 1992; 방원일, 2021). 그러나 그러한 규정을 통해서 과거 문화적 관념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간과하게 되었다.

이 글의 논의는 '종교'라는 말의 사용이 단절적인 신(新)개념의 등장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조현범의 지적대로 '관념적 유형화'가 당시의 실상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국교(國敎)'로 더 잘 이해되는 그러한 개념의 사용례가 전통적 '교'나 '도' 관념의 문화적 관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religion의 번역어로서 '종교' 개념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근대적 종교 개념'이 드라마틱한 어떤 문화적 단절의 산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문화적 관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의 동아시아 종교 이해의 한 스펙트럼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질문이기도 하다.

본 논의는 기본적으로 '교'나 '도' 개념의 문화적 관성 속에서 '종교'가 쓰였던 사례들을 살펴본다. 선행 연구들에서 살폈던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그동안 잘 주목되지 않았던 조선어 이중어 사전²과 주변국(일본, 중국, 베트남)의 이중어 사전 속 해당 용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사전이기에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성격의 자료이지만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종교' 개념 사용 양상의 어떤 일반적 패턴을

지적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아직 정식으로 출간되지는 않은 상태다. 해당 결과물에 대한 기본정보는 한국학중앙연구원홈페이지(<https://www.aks.ac.kr/>)의 '주요사업' 탭의 '성과공개(~2019)'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² 최근에 이 자료에 주목한 연구 사례가 조현범 외(2019)와 방원일(2021)이다. 국내 이중어 사전은 황호덕과 이상현에 의해서 영인본 11책으로 묶여 나왔으며(『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 사전: 영인편』, 박문사, 2012), 이 성과로 인해서 '종교'라는 근대 개념어 수용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을 용이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보여 주는 데에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II. 20세기 이전의 ‘종교’ 용례: ‘교’, ‘도’와 국교

‘종교(宗敎)’가 쓰인 자료들에서 연구자들은 이 용어가 신조어라는 점에 집중한 나머지 무언가 특이한 점, 즉 우리가 지금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다른 점을 놓치고 있었다. 방원일은 최근에 한국에서 ‘종교’ 용례가 나온 최초의 출처가 장석만(1992)이 제시하였던 『한성순보』의 1883년 11월자 기사가 아니라 유길준의 『세계대세론(世界大勢論)』의 “종교수이(宗敎殊異)”편이라고 주장하였다(방원일, 2021: 9-10). 해당 텍스트에서 유길준은 ‘종교’를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한자의 낱글자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사용하는 듯하다.

종교의 차이[殊異]는 국가의 이해에 관련되는 일이 적지 않다. ...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그 나라에는 원래 전해 내려오는 종교가 있다.** 간혹 그 나라에 원래부터 전해 내려오는 종교가 없고 다른 나라의 종교를 채용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 본국의 종교라 말한다. 우리나라의 유교는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며, 일본의 불교는 인도에서 가져온 것과 같이 세대가 오래되고 인민이 받들어 믿게 되면 본국 종교와 다름이 없으니, 어찌 본국 종교가 아니라 하겠는가?(방원일, 2021: 10; 조현범 외, 2019: 159-160)

종교를 국가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 마치 ‘국교’를 말하는 듯하다. 다만 “원래 전해 내려 오는 종교”로서 “본국의 종교”를 상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교와는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는다.³ 이어서 유길준은 종교

³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교’라는 표현은 ‘state religion’ 혹은 ‘national religion’이라는 의미로 근대의 국민국가를 전제한 개념이다(cf. 이용주, “유교 국교화에 관한 의문”(2012)). 왕조의 지배 이념을 뒷받침하는 가르침의 경우는 근대적 종교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당시에 실제로 ‘국교(國敎)’라는 표현을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我韓의 宗敎와 歷史”, 『황성신문』, 1910년 3월 3일자). 이 글에서 언급하는 ‘국교’는 ‘나라의 최고 가르침’을 의미하는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대개 각 종교의 가르침을 세운 본뜻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벌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반드시 하늘을 말하고 신을 말하여 알지 못할까마득한 곳에 재앙과 복을 맡겨서 정하고, 인민의 착하지 않거나 의롭지 못한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충이라 하고 효라 하는 윤리를 힘쓰도록 하는 것이다(조현범 외, 2019: 160).

지금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종교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유교 중심의 사회에서 발전시켜 온 '교(教)', '윤리(倫理)'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꽤 옛날부터 이어져 온 관념임을 알 수 있다.

『세계대세론』에서 최초 용례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전까지 최초의 용례라고 여겨진 사례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기존에는 『한성순보』 1883년 11월 10일 “구라파주(歐羅巴洲)”의 용례였다(장석만, 1992: 39). 실상 『한성순보』를 봐도 이전 사례가 더 있었다. 1883년 10월 31일자 “논주양(論洲洋)”의 예가 그것이다. 이 두 기사의 ‘종교’ 용례는 각 나라의 정보를 소개하면서 ‘그 나라의 종교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과연 근대적 개념을 사용한 것인지 유길준이 말한 “본국의 종교”와 같은 의미로 말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다.

근대적 용례로서의 특징은 ‘유적 범주’로 쓰였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종교들은 A, B, C 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수로 제시하는 것만으로 근대적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교와 석교 혹은 유도와 불도 또 혹은 유학과 서학 등을 나열해서 언급하는 예가 이전에도 많았다.⁴ 전통적 개념(敎, 道)도 그렇게 쓰인 바가 있다는 점(예를 들어, ‘三敎’)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근대적 개념’이 쓰였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단어는 새로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관념들은 새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다른 용례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⁴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는 ‘유도(儒道)’와 ‘외도(外道)’,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도장총설(道藏總說)” 참고.

공교롭게도 1883년 이전에도 ‘宗教’라고 하는 한자어 표현을 적은 수이나마 찾아볼 수 있다. 근대적 종교 개념이 사용되기 이전의 용례가 어떠한지는 그 이후 사용되는 개념의 차별적 특성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 ‘종교’ 용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의 용례들을 보자. 이름과 연결되어 ‘종(宗)+교(教)’인 사례나 인명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교’ 용례는 1895년 이후에 보인다(표 1 참고). 그런데 1395년의 용례가 눈에 띈다.

거듭 귀국 사신 호조 전서 김적선(金積善)을 뵈오니 두 『장경(藏經)』을 호송해 주시어 금년 3월 초8일에 배를 이 포구에 매어두고 귀한 글월을 받았습니다. 봉함을 뜯고 절하고 읽어 보니 귀국의 은혜에 감동됨이 마치 바다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에 빛이 있고 산천이 더욱 중해지니 이마에 손을 올리기 한이 없습니다(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0일 신축 1번째 기사).

이 용례를 보면 불교의 가르침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의 ‘종교’ 용법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하나의 단어이기보다는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찬사를 표현한 말로 보인다. 혹은 왕의 교지에 대한 극존칭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그 경우라도 지금의 용법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1895년 이후 실록에 등장하는 용례는 모두 ‘宗教’라는 말을 쓰면서 ‘儒敎’를 지시하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인용하는 1899년의 “존성윤음(尊聖綸音)”에서도 ‘나라의 최고 도로서의 유교’를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만국에서 종교를 높이고 숭상하여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 우리나라의 종교는 우리 공부자(孔夫子)의 도가 아닌가? … 우리 대한(大韓)은 기자(箕子)가 팔조(八條)의 가르침으로 어진 교화를 퍼게 되었고 나라의 종교는 여기에서 기초가 비롯되었다(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4월 27일 양력 두 번째 기사).

이 표현을 유교를 여러 종교 중의 하나로 규정했다고 보면 그 진의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백성을 교화하는 도가 있는데, 그것을 ‘종교’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종교가 유교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

표 1 1900년 이전 『조선왕조실록』의 '宗教' 용례들

| 연대 | 자료명 | '종교' 용례 형태 |
|------|--|-------------------------------|
| 1395 |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 '宗+敎' 불교의 가르침 혹은 왕의 교지 |
| 1410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22일 무자(戊子) 첫 번째 기사 | 인명과 연결된 표현(연사종을 대신하고, 下敎하기를,) |
| 1423 |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5월 1일 경신(庚辰) 세 번째 기사 | 왕명과 연결된 표현(태종의 敎誨) |
| ∴ | ∴ | ∴ |
| 1801 | 『순조실록』 3권, 순조 1년 7월 13일 정해(丁亥) 5번째 기사 | 인명(김종교) |
| ∴ | ∴ | ∴ |
| 1895 |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6월 10일 기묘(己卯) 첫 번째 기사 | 근대 '종교' 개념(종교 = 유교) |
| 1899 |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4월 27일 양력 두 번째 기사 | 근대 '종교' 개념(종교 = 유교) |

문이다.

정리하자면 20세기 이전까지 실록에 등장하는 48건의 '宗教' 용례 중에서 인명이나 '왕의 교지'의 의미로 쓰인 것을 제외하면 '종+교'로서 불교 경전의 가르침(혹은 왕의 교지)을 나타내는 용례가 1건(1395년), '나라의 최고의 도'로서 '유교'를 지시하는 용례가 2건(1895, 1899)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승정원일기』의 기사 몇 건을 보자. 고종 19년 임오(1882) 3월 29일(을묘)의 기록을 보면, “洋敎之禍, 甚於洪水猛獸, …[서양 종교의 화는 홍수와 맹수보다도 심하여…]”라고 하여 지금에 와서 '종교'라고 표현할 부분에(현대어 번역자는 '종교'로 옮겼다) '교(敎)'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종 19년 임오(1882) 8월 5일(무오)의 기록을 보면, 역시 '교'를 사용하여 지금의 종교에 해당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其敎則邪, 當如淫聲美色而遠之, 其器則利, 苟可以利用厚生, 則農桑·醫藥·甲兵·舟車之制, 何憚而不爲也? 斥其敎而效其器, 固可以竝行不悖也。

그들의 宗敎는 사교이니만큼 음성(淫聲)이나 미색(美色)처럼 여겨 멀리하여야겠지만, 그들의 기계는 정교하니 그것으로 이용 후생(利用厚生)이 가능하다면 농기구나 의약품, 무기, 운송 수단을 만드는 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宗敎는 배척하되 그들의 기계는 본받는 것은 실로 상치되지 않고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문집에 기록된 바에서도 이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⁵ 운양 김윤식(1835~1922)의 “십륙사의(十六私議)”(『운양집』 제7권, 議) 중에서 종교 조약에 대해서 논한 바를 보자(1890년 기록).

附 論 明 立 教 約

西國之教。有天主耶穌之別。其源一也。耶穌教美國之所尚也。… 天主教法國之所尚也。… 嘗見清國與各國約條書。皆明書傳教之事。與法國人約條。原約外別立教約。

붙임 종교 조약을 명확히 제정하자는 논의

서양의 종교는 천주교와 예수교의 구별이 있는데 그 근원은 하나다. 예수교는 미국에서 숭상하는 것이다. … 천주교는 프랑스에서 숭상하는 것이다. … 청나라와 각국 간의 조약서를 본 적이 있는데, 모두 종교를 전도하는 일에 대해 명확히 써놓았다. 프랑스인과의 조약에는 원 조약 외에 종교에 대한 조약을 따로 제정하였다.

원문을 보면, 서구인들이 religion이라고 한 것을 ‘교(教)’로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약문은 religion의 역어로 어떤 단어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religion 역어의 최초 동아시아 사례라면 일본의 ‘미일 수호통상조약’(1858)을 꼽을 수 있는데, 해당 조약문에서 religion을 ‘종법(宗法)’으로 옮긴 바 있다. 조선의 19세기 조약문 속에서 religion은 ‘교(教)’로 옮겨졌다(예. 1883년 조·영 조약).

이러한 예들을 보면 ‘교’로도 충분히 표현되던 것이 18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종교’로 일부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의미는 앞서 확인한 대로 ‘최고의 가르침’, ‘국교(나라의 가르침)’였다. ‘종교’라는 말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교’나 ‘도’ 개념의 특수한 형태(비교 우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내내 다양한 자료(문집, 신문, 잡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양이나 일본의 ‘종교’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근대적 개념으로서 전혀 위화감없이 이해될 수 있는 예들도 있다. 예를 들면 『황성신문』의 다음 기사 같

⁵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를 활용하였다.

은 경우다.

日本은 現在의 佛敎, 神道, 耶蘇敎의 統計를 據흔즉 … 文部省에서는 直轄흔는 各 學校에 訓示흔디 課程外에 宗敎上敎育을 施흔던지 또 宗敎上의 儀式을 行흔을 不許흔얏고 內務省에서는 各 佛敎派에게 訓示흔디 宗敎家가 政事等に 關係흔지 못할 줄노 헐얏더라

일본은 현재의 불교, 신도, 기독교의 통계를 근거로 … 문부성에서는 직할하는 각 학교에 과정 외의 종교 교육을 시행하거나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을 불허하였고, 내무성에서는 각 불교 교파에 종교가(宗敎家)가 정치 등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學校와 宗敎”, 『황성신문』, 1899년 8월 17일자).

당시 일본의 종교 정책⁶을 소개하는 것인데, 교육과 종교의 분리를 천명하는 내용이다. 이는 역으로 종교 배경을 가진 교육기관에서 종교 의식(儀式)을 수행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용례를 근대적 종교 개념이 사용된 대표적 사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판단을 뒤로 미루고자 한다. 20세기 초 사례와 묶어서 다음 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다만 종교와 교육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교’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종교’라는 말이 한자문화권의 ‘교’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었다는 점이다. religion의 번역어로서의 ‘종교’나 다양한 종교 전통들의 유적 범주이자 추상화된 개념으로서의 ‘종교’의 용례가 두드러지기보다는 국교로서 종교라는 한자어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많았다.

⁶ 일본 정부에서 행정 법령 상 종교는 19세기까지만 해도 불교, 신도가 중심이었고, 기독교는 애매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외국인 거주지의 포교 자유—기독교[耶蘇敎]는 1873년 신교(信敎)의 자유가 인정됨—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지위를 인정받았을 뿐이다(김용덕, 2013: 219). 법률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로 명시하지 않았었는데, 1899년에 이르러 변화가 나타났다. “內地雜居와 外敎”, 『황성신문』, 1899년 5월 2일자 기사를 보면, “日本에서 耶蘇敎는 法律上宗敎로 認흔이 無흔故로 其處理法습이 無흔얏거니와 … 日本의 一宗敎를 습아 部습으로 發흔더라도 足흔디 헐얏더라.”라고 하고 있다. 오가와라 마사미치(小川原正道)는 메이지 30년 전후 기독교의 종교로서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채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小川原正道, 2013: 147). 메이지 32년(1899) 내무성 훈령 41호가 ‘신불도 이외 종교의 포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이해방식을 고려한다면, ‘종교’라는 용어가 쓰였다고 해서 ‘근대적 종교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선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용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 단순 언급 사례(가령 『한성순보』 1883년 11월 10일자 “구라파주(歐羅巴洲)”의 용례⁷⁾)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종교 개념과 차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용례들은 별도로 구분해서 시대적 의미 해석 추이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의미 해석 추이는 이하의 자료 검토 과정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III. 20세기 초 ‘종교’ 용례: ‘교’에서 ‘종교’로

1900년대 초에도 ‘종교’는 전통적인 ‘교’나 ‘도’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되었다. 가령 『황성신문』의 1902년 8월 12일자 “동서양각국종교원류(東西洋各國宗教源流)”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종교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나라의 가르침(국교)=종교’의 의미로 사용된 예를 보여 준다.

夫宗教云者口各其國所宗尚之教也니其說이出於佛書宗鏡錄融會宗教之言호야現今世界各國이以其國所尊崇之教로謂之宗教라호니

종교라는 것은 각 나라가 으뜸으로 숭상하는 가르침이니, 그 설은 불교 서적인 『종경록(宗鏡錄)』에서 ‘종교를 융회(融會)시킨다.’는 말에서 나와 현재 세계 각국이 그 나라에서 존송하는 가르침을 ‘종교’라고 부른다.

또 『황성신문』의 1910년 3월 3일자 “아한(我韓)의 종교(宗教)와 역사(歷史)”에서도 ‘국교=종교’ 사용례를 볼 수 있다.

宇宙間森羅萬衆中에 特別히 民族의 思想을 統호며 國家의 基礎를 固鞏케호는 者는 宗教와 歷史라 … 現今我韓의 宗教로 言호면 檀箕以來四千年教化가 日以解紐

⁷⁾ 유럽의 종교를 소개하고 있어서 지금의 종교 이해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종교는 흔히 耶蘇敎(예수교)를 신봉하고, 또 回敎와 猶太敎가 있다 ….”

흥으로 國敎의 惟日宗旨가 不立하고 各種敎派가 分門裂戶하야 互相推携하고 競相排斥하느니 一般民衆이 入彼出此에 志向이 不一하고 禮節이 各殊하즉 宗教가 有한 國이라 謂키 難하며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 중에 특별히 민족의 사상을 통일하며 국가의 기초를 굳게 하는 것은 종교와 역사이다. ... 우리 韓國의 宗敎로 말하면,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래 4천 년의 교화가 날로 무너져서 國敎의 유일한 종지가 서지 못하고 각종 교파가 문호(門戶)를 나누고 찢어 서로 밀거나 끌어내고 서로 다투어 배척하는데 일반 민중은 여기저기 출입(出入)하는데 지향(志向)이 통일되지 않고 예절이 각기 다르니, '종교가 있는 나라'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예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이러한 용례는 1910년 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체 '종교'의 용례 중에서 상당수가 '종(宗)+교(敎)'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조금 다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앞서서 봤던 '다른 나라의 종교'를 다루는 글에서 쓰이는 용례이다. 또 국내의 '종교들'을 말하는 경우도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한 사례라 볼 수 있지만 해석의 모호성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미상(意味想)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석자가 근대적 의미로도 전근대적 의미로도 읽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각도에서 신문 상에 등장하는 '종교' 용례를 살펴보자.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신문자료상에서 '종교'⁸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연도별(1900-1910)로 표 2와 같은 빈도를 보여 준다.⁹

전체 기사 수 중에서 '종교'가 사용된 기사의 비중을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신문사 수 및 신문 발행 수도 시간에 따라 늘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증감 추세를

⁸ '宗教', '종교', '종교', '宗敎' 등의 표현이 사용된 예들이다.

⁹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상에서 검색한 데이터는 결측치 및 잘못 검색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가령 '종교(種橋)'도 같이 검색되는 문제가 있다. 누락된 정보를 추가하고, 맞지 않는 데이터를 제거한 결과값이다. 특히 '淨土宗敎會'와 같이 특정 종교 단체의 명칭이 '정토종' + '교회'인 경우도 '종교' 용례에서 배제하였다(대동진종교회, 진종교, 일련종교회). 다만 유교계 종교단체인 '대성종교회'나 '대동종교회' 등은 배제하지 않았다(송종교회, 대종교회, 태극종교회 등). 유자들 사이에서 1906년 이후 활발하게 유교 진흥 운동의 일환으로 '종교'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나라의 큰 가르침'이란 의미의 '종교'를 염두에 둔 사용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 2 1900~1910년(*8. 28.까지) '종교'가 쓰인 신문기사 수

| 연도 | 1900 |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1906 | 1907 | 1908 | 1909 | 1910* |
|--------------|------|------|------|------|------|------|------|------|------|------|-------|
| '종교' 쓰인 기사 수 | 19 | 12 | 28 | 11 | 15 | 64 | 185 | 119 | 116 | 291 | 217 |

표 3 1900~1910년(*8. 28.까지) 전체 신문기사에서 '종교'가 쓰인 기사 수 비율

| 연도 | 1900 |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1906 | 1907 | 1908 | 1909 | 1910* |
|-----------------|--------|--------|--------|--------|--------|--------|--------|--------|--------|--------|--------|
| 전체 기사 수 | 15,743 | 13,882 | 18,388 | 17,818 | 21,224 | 25,332 | 40,722 | 55,898 | 66,060 | 67,421 | 53,341 |
| '종교' 쓰인 기사 수 | 19 | 12 | 28 | 11 | 15 | 64 | 185 | 119 | 116 | 291 | 217 |
| 비율(% 소수 2자리) | 0.12 | 0.09 | 0.15 | 0.06 | 0.07 | 0.25 | 0.45 | 0.21 | 0.18 | 0.43 | 0.41 |

보기 위해서는 비중을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어느 정도로 관심도가 있는 주제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하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 보면 다음 페이지의 그림 1과 같다. 여기에서 큰 비중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1905년(0.07→0.25), 1906년(0.25→0.45), 그리고 1909년(0.18→0.43)이다. 이 시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런 기사에서 '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쓴 경우는 많지 않다. 앞서 본 사례처럼 특정 나라나 지역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개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나라에는 그에 맞는 종교가 있다'는 개념으로 '宗教'를 생각하더라도 그러한 용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이러한 용례들을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가령 종교학교에 대한 기사의 경우 '학교'로 태그(tag)하는 식이다. 이렇게 분류해 보면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⁰

¹⁰ '책'은 책 이름이나 책 내용, 책 속의 항목을 언급하는 경우에, '기독교'는 예수교 혹은 천주교를 언급하면서 '종교'를 사용한 경우에, '유교'는 공자나 유교계 종교단체를 지칭하거나 그 명칭으로 '종교'를 사용한 경우에, '최고 가르침'은 유교와 관련해서 '종교'를 사용한 경우에,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종교'가 사용된 경우에 태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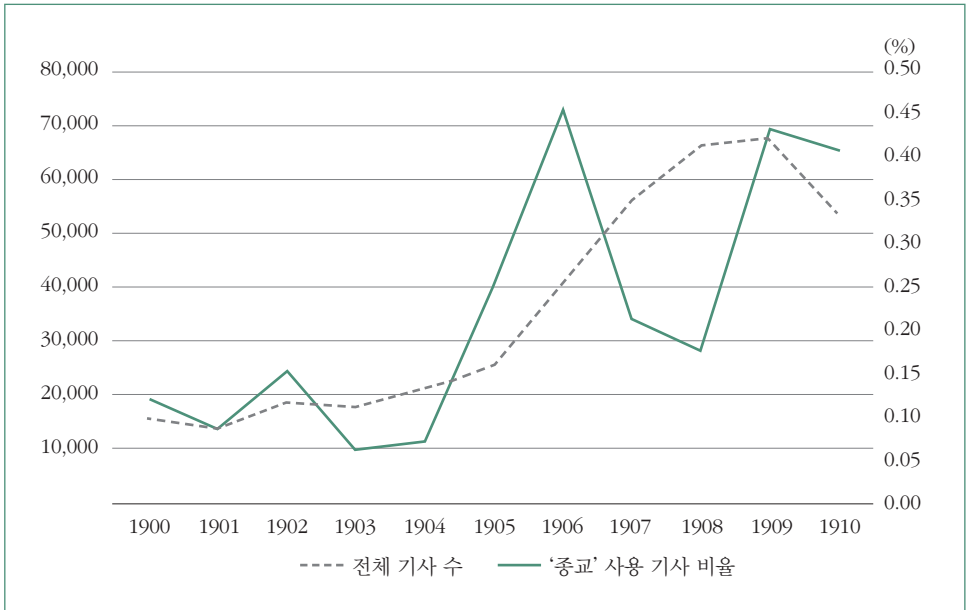


그림 1 1900~1910년(8, 28.) 신문기사 중 '종교' 사용 기사 비율

표 4 '종교' 용례 태그 분류

| | '종교' 기사 수 | 나라, 문화 | 책(이름, 항목) | 기독교 | 유교 | 최고 가르침 | 종교단체 |
|------|-----------|--------|-----------|-----|-----|--------|------|
| 1905 | 64 | 26 | 12 | 15 | 18 | 21 | 18 |
| 1906 | 185 | 60 | 81 | 32 | 33 | 46 | 12 |
| 1909 | 291 | 10 | 61 | 61 | 117 | 129 | 87 |

1905~1906년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기사와 책 이름(주로 광고)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고, 1909년에는 유교와 관련된 용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1905~1906년 '종교' 용례가 느는 것과 1909년 '종교' 용례가 느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05년은 다른 나라의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사용한 예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런 용례는 앞서 인용한 다른 나라의 사정을 설명하는 기사의 용례와 대동소이하다. 이 경우는 '한 나라의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글자 그대로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다음은 책이나 종교 단체

를 언급하는 ‘광고’였다. 구체적인 개념상(概念想)을 추정하기 어려운 ‘단순 사용’의 예들이다.

1906년의 변화는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의 기사량이 증가한 점¹¹과 함께 을사조약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1906년 타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하며 종교를 언급하는 사례들(60건) 중 43% 정도(26건)가 일본 종교사를 다루는 것이었다(“日本維新史三十年”라는 제목의 『황성신문』 시리즈 기사). 유자들이 유교를 나라의 종교로서 바로잡아야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도 보이고,¹² 고종의 ‘종교부식(宗教扶植)’과 ‘학교설립’을 명한 바에 호응한 글도 보인다.¹³ 또 일본계 종교들, 가령 정토종교회 등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종교’를 언급한 글도 있다.¹⁴ 아울러 책과 종교단체를 홍보하면서 ‘종교’가 사용된 예도 특히 많았다. 해당 표현이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행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909년에는 유교 관련 종교 단체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종교’가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¹⁵ 유자들의 언급에서 사용되는 ‘종교’는 ‘나라 안의 최고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통상 유교를 지칭한다. 물론 그러한 이해에서 사용된 ‘종교’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종교 개념과 쓰여진 바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 구분의 명시적 선은 다른 종교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무속이다. 무당들의 활동들도 심심치 않게 기사화되어 있는데, 주로 사람들을 흑세무민한다는 식이다. 그런데 한 무당이 종교단체를 조직해서 당국에 설립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일이 있다.

¹¹ 1904년에 창간된 『대한매일신보』(국한문)가 1904년에 3,186건, 1905년 7,143건, 1906년 15,383건으로 기사량이 증가했고, 『황성신문』은 같은 기간 12,830건, 14,384건, 17,170건으로 기사량이 증가했다. ‘종교’가 쓰인 기사 대부분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기사다. 1906년 만세보 기사 4건이 있을 뿐이다.

¹² “李氏上疏”, 『황성신문』, 1906년 4월 19일자.

¹³ “慶尙北道私立各學校都校長李相호氏勸諭文”,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6년 6월 22일자.

¹⁴ “開教總監”,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16일자.

¹⁵ 통감부가 설치되고 1년 만에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종교선포규칙’이 제정되었다(1906년 11월 17일). 여기에는 종교를 규정해 놓고 있다. 신도, 불교와 그 외의 종교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외의 종교’는 기독교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小川原正道, 2013). 이 규칙에 따라서 종교단체들이 ‘-종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설립되었는데, 특히 1909년 유교계 종교단체들이 많이 등장했다.

무녀 슈런이가 봉신회를 조직하고 종교로 숭배하겠다고 내부에 청일하였는데 내부에서 즉시 퇴각하였다더라(“퇴각해여지”,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4일자)

무속도 종교의 일종으로 보는 지금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¹⁶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당의 활동을 ‘종교’라는 말을 써서 표현한 기사는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시기 신문 기사에서 사용된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의 용례가 많아졌다는 것과 당시의 종교 개념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종교는 국민교화, 국민의 도덕, 국민의 정신 함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그런 취지에서 종교와 교육의 거리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부식종교와 학교설립). 외교적이고 법률적인 맥락, 그리고 일본의 종교 정책상에서 정교분리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만(앞서 인용한 “學校와 宗敎”라는 『황성신문』 기사 참고), ‘국가와 종교’는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 활동도 그런 의미에서 정당화되었다.¹⁷

다음으로 1900~1910년 사이 『조선왕조실록』에 쓰인 ‘종교’ 용례를 보자.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0세기 이후 실록에 등장하는 12건의 ‘宗敎’ 용례 중에서 1900~1906년까지의 9건은 1890년대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의미였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일본의 행정적 종교 용례(유교, 불교, 기독교 등)에 부합하는 것이었다(1909~1912년).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통감부를 설치하기 이전에 조선은 종교에 대한 행정적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았다. 앞서 본대로 ‘우리나라의 종교는 공부자의 도’라는 시각에서 종교를 이해했다. 그런 개념하에서 불교, 기독교 등은 ‘다른 나라의 종교’일 따름이다.

1900~1910년 신문과 실록 자료상에서 사용된 ‘종교’ 용례는 상당수가 ‘종+교’의 용법으로 판단된다. 의미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순 사용’ 용례들의 경우도

¹⁶ 이 진술은 논쟁적일 수 있다. 종교 통계에서 무속이 종교로 잡히지 않는 등 여전히 무속이 공식적으로 종교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지금의 언론 기사에서 무속 혹은 무당을 다루며 종교를 언급하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¹⁷ 교육 영역에서 일본이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도를 ‘超종교’로서 규정하여 해당 규제에서 자유롭게 두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특히 한중일)에서 종교를 국가주의적으로 이해한 바에서 일본이 크게 벗어난 사례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1900~1912년 『조선왕조실록』의 ‘종교(宗教)’ 용례들

| 연대 | 자료명 | ‘종교’ 용례 형태 |
|------|--|-------------------------|
| 1900 |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1월 7일 양력 첫 번째 기사 | 근대 ‘종교’ 개념(종교 = 유교) |
| ∴ | ∴ | ∴ |
| 1906 | 『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6월 9일 양력 첫 번째 기사 | 근대 ‘종교’ 개념(종교 = 유교) |
| 1909 | 『순종실록』 3권, 순종 2년 12월 4일 양력 첫 번째 기사(합방성명서) | 일제 이후 ‘종교’ 단순 언급 |
| 1910 | 『순종실록』 부록 1권, 순종 3년 8월 29일 양력 두 번째 기사(테라우치의 포고문) | 일제 이후 ‘종교’ 儒, 佛, 基 등 |
| 1912 | 『순종실록』 부록 3권, 순종 5년 3월 18일 양력 첫 번째 기사 | 일제 이후 ‘종교’ 단순 언급 |

당시 우세하게 사용된 사례들을 놓고 볼 때, 지금 상정하는 근대적 의미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야욕이 현실화되면서 행정적 의미에서 ‘종교’가 사용되는 경우가 정착되어 가는 와중에도 종교라는 말은 근대적 의미를 고려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종+교’에 근거해서 사용되었다(유교 단체들). 물론 과거의 관성적 이해와 근대적 종교 이해 사이의 모호한 차이 때문에 분간이 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만, 명백하게 근대적 의미로 사용된 예는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에 ‘종+교’의 용례가 많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 여전히 ‘교’나 ‘도’에 근거해서 ‘종교’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IV.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외국어 사전 속 ‘religion’의 번역어

1910년까지도 ‘종교’라는 말이 ‘종+교’로 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의미상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은 이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그 변화 추이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1910년 이전의 ‘종교’의 우세한 의미상을 교차 검증하고 그 이후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하고자 한다.

가장 직접적으로 번역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외국어 사전이다.

다만 사전의 표제어 선택이 향간의 유행을 동시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어 의미상의 변화를 확정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시점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변화의 양상을 추정하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자료의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좋아져서 일본, 중국, 베트남의 외국어 사전도 같이 참고해 볼 수 있었다.¹⁸ 이를 통해서 공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시점의 차이가 있지만 애초 religion이 '교(教)'나 '도(道)'로 번역되다가 '종교(宗教)'로 대체되어 갔다는 것이다. 그 대체는 일본이 가장 빠르고, 조선, 중국, 베트남의 순이었다.

1. 조선

최초의 조선어-외국어 사전은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선교단에서 편찬한 『불한주언』(1880)이다. 그전에 조선어-외국어 학습교재로 로스(John Ross)의 *Corean Primer*(1877)가 있지만 religion이 단어 항목으로 제시되진 않았다. 『불한주언』 이후 religion의 대역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으로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게일(James S. Gale) 그리고 헐버트(Homer B. Hulbert)가 함께 펴낸 『한영주언』(1890)이 있다. 그다음으로 스콧(James Scott)의 *English-Corean Dictionary*(1891), 게일의 『한영주언』(1897), 알레베끄의 『법한주언』(1901), 호즈(John W. Hodge)의 *Corean Words and Phrases*(1902)에서 대역어를 찾아볼 수 있다. 표제어에서 '종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게일의 『한영주언』 2판(1911)과 3판(1931), 그리고 존스(George H. Jones)의 『영한주언』(1914), 게일의 『삼천자전』(1924), 언더우드의 『영선자전』(1925), 김동성의 『최신 선영자전』(1928)도 참고했다.¹⁹

각각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religion의 번역어로서 '종교'가 대표 표제어가 되는 것은 조지 존스의 『영한

¹⁸ Internet Archive(<https://archive.org/>)와 Harvard Library(<https://hollis.harvard.edu/>), 그리고 Google Books(<https://books.google.co.kr/>) 등의 원문서비스를 활용하였다.

¹⁹ 조선어 이중어 사전 중에서 Internet Archive, Harvard Library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자료는 황호덕·이상현(2012)을 참고하였다.

표 6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출간된 조선어 이종어 사전 속 religion의 대역어

| 사전출판연대 | religion 대역 항목 | religion의 대역어 |
|--------|---|----------------------------------|
| 1880 | 교, KYO. 教. Doctrine; enseignement; religion; secte. 도, TO. 道. Route. Doctrin, dogme Province. | 教 |
| 1890 | 교, 教, doctrine, teaching, religion, sect 도, 道, a road; doctrine, dogma, religion, belief; province... 성교, 聖教, the holy doctrine, religion ----- Religion, n. 도, 교, 성교. | 教, 道, 聖教 |
| 1891 | Doctrine 교, 도, 도리 Religion 교 | 교 |
| 1897 | 교 l. 教 (ㄱㄹㅈ) Doctrine; religion. See 도. 국교 s. 國教 (나라) (ㄱㄹㅈ) The state religion. See 국학. 도 l. 道 (길) A doctrine; a religion. (닥다). See 교. A province. * '종교' 항목이 없다. | 교, 도 |
| 1901 | Religion n.f. 회...교 H'e'u . . Kio | 회, 교 |
| 1902 | Religion, A Taw 도 or Kyo 교. Confucian religion, You-taw 유도; Buddhistic religion, Poul-taw 불도; Taoism, Sun-taw 선도. The Christan religion, Seung-gyaw 성교 (Catholic); Yea-soo-kyo 예슈 교(Protestant). | 도, 교 |
| 1911 | 교 l. 教 (ㄱㄹㅈ) Doctrine; religion. See 도. 도 l. 道 (길) A doctrine; a religion. (닥다). See 교. A province. 종교 s. 宗教 (마루)(ㄱㄹㅈ) The national religion. | 교, 도(*종교'는 national religion) |
| 1914 | religion, n. 종교 (宗教) : (of a sect) 교파: 종파 | 종교 |
| 1924 | religion 종교 宗教 | 종교 |
| 1925 | Religion, n. 도 道, 교 教, 성교 聖教, 종교 宗教, 교문 教門, 교파 教派. | 도, 교, 성교, 종 교, 교문, 교파 |
| 1928 | 종 n. (宗) A sect; a religion. 종교 n. (宗教) Religion. [例] 종교가 (家) Religionist. 종지 n. (宗旨) A religion; a sect; a denomination | 종교, 종, 종지 |
| 1931 | 교 l. 教 (ㄱㄹㅈ) Doctrine; religion. Lesson; teaching See 도. 도 l. 道 (길) A doctrine; a religion. (닥다). See 교. A province. 종교 s. 宗教 (마루)(ㄱㄹㅈ) Religion; the national cult. | 종교, 교, 도 |

주던』(1914)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일의 『한영주던』 2판(1911)에 ‘종교’가 실려 있지만 ‘the national religion’으로 되어 있다. 지금의 ‘국교’에 해당하는 말로, 앞서 봐 왔던 ‘종+교’의 용법을 반영하여 영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대체로 religion의 대역어가 ‘종교’가 되고 있지만 언더우드의 『영선사전』(1925)에서는 여전히 ‘도’와 ‘교’가 앞서 있고, 김동성의 『최신 선영사전』(1928)에서는 ‘종지’도 여전히 ‘a religion’에 대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religion-종교’의 연결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거 개념의 관성은 그 흔적을 강하게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2. 일본

일본어-외국어 사전은 상당히 많은 자료가 남아 있다. 게다가 19세기 후반에 religion의 대역어로서 ‘宗敎’가 자리를 잡는다. 따라서 1910년 이전까지만 확인해도 충분하다.²⁰ 각각을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 7과 같다.

religion의 역어로 ‘宗敎’가 채택되기 시작하는 것이 1880년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이소마에 준이치, 2016; 호시노 세이지, 2020; 長沼美香子, 2015), 일본어 이중어 사전의 표제어에서 ‘宗敎’가 등장하는 것도 큰 시간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86). 다만 대표 표제어가 되는 데에는 다소 시차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95~1904).

3. 중국

중국어 이중어 사전도 많은 자료가 남아 있다.²¹ ‘宗敎’가 religion의 대역어가 되는 것은 1910년대 중반의 일이다. 1843~1918년 사이의 이중어 사전을 참고하였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227페이지의 표 8과 같다.

1916년에 이르러서야 religion의 대표 대역어로 ‘宗敎’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²⁰ 일본어 이중어 사전의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목록을 참조.

²¹ 중국어 이중어 사전의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목록을 참조.

표 7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출간된 일본어 이종어 사전 속 religion의 대역어

| 사전출판연도 | religion 대역 항목 | religion의 대역어 |
|-----------|--|---|
| 1868 | 宗門 Choumon sect, ou religion 同門 Domon la meme religion, secte, ou race. 門派 Monpa religion ou secte | 宗門, 門派 |
| 1872 | 教 oshiye teaching, instruction; precept, doctrine; sect, religion. ----- religion oshiye, miehi, ho, do. | 教, 道, 法 |
| 1881 | ” | ” |
| 1884 | 教 ヲシヘ to instruct; a doctrine; a sect; to order 道 タウ/ミチ a road, path, or way; ... a principle, doctrine; ... 法 ハウ/ノリ a law, a statute; a rule; regulations; precepts; art; skill 門 ホン/モン/カド a gate, ... a sect... | ‘religion’ 나오지 않음 |
| 1886 | 教 oshie teaching, instruction, precept, doctrine; religion, sect ----- religion oshie(教), michi(道), ho(法), do(道), kyoho(教法), kyomon(教門), shukyo(宗教) | 教, 道, 法, 教法, 教門, 宗教 |
| 1894 | ” | ” |
| 1895 | religion 宗教, 宗門 sect 派, 分; 宗派, 門派, 宗徒 | 宗教, 宗門 |
| 1897~1903 | 1886, 1895 버전의 교차 반복 | 教(日英) 혹은 宗教(英日) |
| 1904 | shu 宗 (oshie) secte shukyo 宗教 (oshie) religion shumon 宗門 secte, religion shushi 宗旨 religion, secte jashu 邪宗 secte corrompue, religion perverse kokyo 國教 religion nationale | 宗教* *이후 日佛, 佛日 日英, 英日 모두 religion의 대역어 는 ‘宗教’가 됨. |
| 1905 | fausse religion 偽教 = fausses doctrine religion 宗教; 宗; 教 | 宗教 |

수 있다. 그전까지는 계속 ‘教’가 religion의 대역어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과는 10여 년 이상 차이가 있지만, 조선과는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대역어 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8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출간된 중국어 이종어 사전 속 religion의 대역어

| 사전출판연도 | religion 대역 항목 | religion의 대역어 |
|--------|---|---|
| 1843 | 教 Keaóu, to instruct, to teach ; instruction, a law, a sect of religion 教門 keaóu mún, a sect 法 Fã, A law, a religion 法門 fã mun, a sect of religion | 教 keaou, 法 fa |
| 1874 | Religion, s. f. 教 kiao. Secte, s. f. 道教 tao kiauou. | 教 kiao |
| 1883 | Religion, n. 教, 教門; the religion of Jesus, 耶穌教; the Roman Catholic religion, 天主教; ... the religion of the literati, 儒教; the religion of Buddha, 釋教, 佛教; the religion of the rationalists, 道教 ... | 教, 教門 |
| 1893 | 教 kiáo. Religion, enseignement. 儒-, 佛-, 道-, Joû-, foû-, táo-, la religion des lettres, le bouddhisme, et la religion des docteurs de la raison ----- religion, 教 secte, 教門 | 教 kiao |
| 1900 | CHIAO(KIAO) 教 To teach; to instruct. A religion; sects; doctrines; education ... 教門 a sect; a school of philosophy; disciples... FAH 法 A law ... Buddhism. 法門 the Buddhists ... TAO 道 A road ... A doctrine ... | 教 chiao(kiao) |
| 1905 | Religion. sf. kiao'. 教 Fausse religion. zia kiao'. 邪教 Secte. sf. y'teu kiao', zia kiao', kiao' 異端教, 邪教, 教 | 教 kiao |
| 1910 | Religion, chiao, 教 Sect, chiao mên, 教門 | 教 chiao |
| 1915 | CHIAO(KIAO) 教 To teach; to instruct. A religion; sects; doctrines; education ... | 教 chiao |
| 1916 | Religion, n., (any system of faith), 宗教 tsung chiao, 教派 chiao p'ai, 教門 chiao mên. | 宗教 tsung chiao 教派 chiao p'ai 教門 chiao mên |
| 1918 | 教 Chiao 1. 誨也, To educate, ... 2. 訓辭也, Advice ... 3. 宗教也, Religion, n., 如 to embrace a religion, 入教 佛教, Buddhism. 耶穌教, Protestantism 基督教, Christianity 天主教, Catholic | 宗教, 教 chiao |

4. 베트남

베트남어 이중어 사전은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 20세기 이전 자료는 4건, 20세기 이후 자료는 1945년 본과 1955년 본을 확인하였다.²² 각각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출간된 베트남어 이중어 사전 속 religion의 대역어

| 사전출판연도 | religion 대역 항목 | religion의 대역어 |
|--------|--|-----------------------|
| 1868 | Đạo (ch.). Religion, classe, division, fuir, voler Giáo (ch.). Doctrine; lance. | Đạo [道] |
| 1874 | Đạo (ch.). Religion, voie, route, raison, vertu ... - <i>thiên chúa</i> . Religion chrétienne. - <i>nhu</i> . Religion des lettrés ou de Confucius - <i>phật</i> ou - <i>thích</i> . Religion de Phật ou du Bouddhisme Giáo (ch.). Doctrine, enseigner, ... | Đạo |
| 1884 | Religion s f. Đạo. Surprendre la <i>religion</i> de quelqu'un, phình (gat) <i>lòng tử-tể</i> người nào. | Đạo |
| 1893 | Đạo. Religion; Voie; Raison ... - thật, Vraie religion. Giáo. Lance; doctrine | Đạo |
| 1899 | Đạo 道. Chemin, route; ..., doctrine, religion ... - <i>Đạo thiên chúa</i> 道天主, la religion chrétienne - <i>Đạo cải hội thánh</i> 道改會聖, religion protestante, doctrine réformée. - <i>Đạo phật</i> 道佛, le bouddhisme. - <i>Đạo nhu</i> 道儒, la secte de Confucius dite aussi des lettrés. Giáo 教. Doctrine, ...; secte religieuse, école de philosophie. - <i>Tam giáo</i> 三教, les trois sectes de la Chine: <i>Nhu</i> , <i>Phật</i> , <i>Đạo</i> . | Đạo |
| 1945 | đạo ethical way of acting; religion giáo to teach | Đạo |
| 1955 | đạo ethical way of acting; religion; way, route... đạo-dữ virtue, religion. giáo to teach / doctrine, religion R. tôn giáo religion. | tôn giáo [宗教], đạo |

²² 베트남어 이중어 사전의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목록을 참조.

한자문화권에서 religion의 대표 대역어로 '종교(tôn giáo)'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늦었던 나라가 베트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시기가 1955년이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한중일과는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수의 절대치가 적었기 때문이다. 1900~1945년 사이에 표제어의 교체가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현재 확인된 자료에 국한해서 볼 때, religion의 대표 대역어로 '종교'가 채택되는 게 가장 늦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베트남어 이중어 사전 검토 결과는 그런 면에서 다소 불확실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한중일과는 다르게 '教(giáo)'가 아니라 '道(dào)'가 religion의 최초의 대역어였고, '교'는 일관되게 독립적으로 religion을 의미하지 못했다. 확인된 자료상으로만 보면,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종교'와 함께 '교'도 religion에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일본, 조선, 중국, 베트남이 순차적으로 religion의 대역 표제어가 '종교'로 정착되었는데, 앞서서는 '교'나 '도'가 그 대역어였다. 아울러 '종교'의 대체에 이르러서도 '교' 혹은 '도'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으며, '종교'의 의미도 '교' 개념의 방향성 안에서 이해되었던 흔적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Gale, 1911).

V. '종교'의 낯선 친숙함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종교'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하나의 단어'로 생각되지 않았다. 한문에 익숙한 사람들은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풀어서 이해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종교'라는 말을 사용한 유길준은 물론이고, 고종, 그 밖의 많은 지식인들이 '종교'를 낯선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친숙한 '교(教)' 개념에 근거해서 받아들였다. '교(教) 중의 교(教)'라는 비교의 맥락을 가진 최상급의 의미로 '종교'를 이해했던 것이다.

'종+교'의 이해가 그렇다고 한국에서만 '낯선 친숙함' 이해방식을 따랐던 건 아니다. 한자문화권의 대표 국가들 사이에서 그 경향성을 확인한 바로 미루어

보면 대체로 비슷한 경로를 거쳤다. 낯선 religion이라는 개념을 가장 근사(近似)하다고 생각되는 ‘교’나 ‘도’로 불렀고, 그 개념은 인간의 도리를 함양케 하는 배우고 전파해야 할 진리이자 국가의 근간으로서 국민의 정신을 뒷받침해야 할 신념체계라는 의미를 담아야 했다. 그 맥락에서 복수의 교나 도의 존재는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 ‘삼교(三敎)’(유·불·도)와 같은 표현에서도 교나 도가 유적 범주로 기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라는 말은 얼마나 새로운 것이었을까?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근대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새로움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좀 더 복잡한 문제이지만 후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답론 분석 수준에서 ‘종교’ 개념의 근대성이라는 새로움을 논하게 될 때 놓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인민 교화적·문명 기호적·반종교적·이신론적 종교 이해(장석만, 1992)는 대체로 과거 관념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인민 교화는 ‘교’나 ‘도’의 관념에서 늘 환기되었던 바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게 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국가 정신의 요체로서 ‘종교를 심으려’ 했던 것은 분명 근대적 상황에서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었다.²³ 복수의 ‘교’나 ‘도’가 있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적 상황에서 ‘종교’라는 말이 쓰이는 것과는 반대로 국가라는 집단적 실체에 투여된 ‘상상의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내거나 뒷받침하는 가장 우월한 가르침은 설정되기 어려웠다. 종교의 자유 문제라는 국제 외교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실질적으로는 ‘信敎의 自由’로 표현되는 ‘傳敎의 自由’였다.

‘종교’ 개념 이해에서 전통적 관념의 관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새삼스럽게 지금의 ‘종교’ 용례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 본 회퍼를 인용하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이태형,

23 조선시대 학교 설립은 “풍속과 교화의 근원”으로 종종 이야기되었다. 다만 그렇게 설립된 학교는 “서울에는 성균관과 오부 학당(五部學堂)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향교(鄕校)를 설치”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민교육’과는 거리가 있었다(cf.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3일 기유 12번째 기사).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국민을 호명하든 양반이라는 지배계급을 호명하든 교-교화의 의미상은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종교부식’이라는 표현이 ‘a religion’이 아니라 ‘best teaching’의 함양을 뜻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2011).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자현 스님, 2020).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는 옛날부터 논란이 되었던 터라 새롭지 않다. 외려 ‘유교는 종교다’라는 이야기가 소수의 주장인 느낌이다.²⁴ 어떤 ‘절대적 가치체계’를 떠올리는 사고방식하에서 ‘종교’는 이미 상대화된 범주라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물론 ‘종교’에 대한 이런 이해는 ‘종교’ 용례의 일부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반대로 ‘절대적 가치체계’로서 ‘종교’를 사유하는 방식도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진정한’, ‘참된’이란 수식을 덧붙여서 ‘제대로 된 종교는 기독교다, 불교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모습의 신앙, 삶의 방식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정성민, 2006; 임병태, 2020; 정하림, 2022). ‘이 종교가 참된 종교다’라는 식의 주장에서는 ‘○○○은 종교가 아니다’는 주장에 담긴 절대적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라는 말의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것을 떠올린 것이다. ‘진정한 종교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류의 이야기들은 종교가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교’를 단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게 퍼져 있다. 여전히 근대적 개념으로 사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종교’라는 말을 전적으로 전유하려는 태도에서나 완전히 배제하려는 태도에서나 ‘절대적 가치체계’에 대한 사고방식의 강력한 힘을 확인할 수 있다. 개항기, 일제 강점기까지 ‘종교’라는 새로운 말을 이해하는 방식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종교’의 새로움은 그 말 자체만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과거 ‘종교’를 떠올렸을 때 품었던 특정한 패턴의 사고방식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념이 빚어낸 현실만큼이나 새로운 사회 환경이 개념의 이해를 새로이 만들어 내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종교’ 용례들을 살펴보는 유용성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고일: 2022년 6월 15일 | 심사일: 2022년 7월 5일 |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9일

²⁴ 유교의 종교성을 논하는 책들이 나오곤 한다(가지 노부유키, 2002; 임계유 외, 2011). 책으로 설득을 해야 할 정도의 문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문헌

1. 고문헌자료

-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DB
 『승정원일기』, 한국의 지식콘텐츠
 『지봉유설(芝峰類說)』, 한국고전종합DB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한국고전종합DB
 『운양집』, 한국고전종합DB
 『한성순보』,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황성신문』,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대한매일신보』,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2. 사전류

조선어 이종어 사전

- Alévêque, Charles. 1901. 『법한주던(*Petit Dictionnaire Francais-Coréen*)』. Seoul: Imprimerie “Seoul Press”(Hodge & Co.).
- Gale, James S. 1911. 『韓英字典(*A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L'T.
- Gale, James S. 1924. 『三千字典(*Present Day English-Korean: Three Thousand Words*)』.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Gale, James S. 1897. 『韓英字典한영주던(*A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Shanghai, Hongkong, and Singapore: Kelly & Walsh, L'D.
- Hodge, John W. 1902. *Corean Words and Phrases: Being a Handbook and Pocket Dictionary for Visitors to Corea and New Arrivals in the Country*. 2nd Edition. Seoul: The Seoul Press—Hodge & Co.
- Jones, George Heber. 1914. 『英韓字典영한주던(*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Kyo Bun Kwan.
- Les Missionnaires de Coree de la 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de Paris. 1880. 『한불주던韓佛字典(*Dictionnaire Coreen-Francais*)』. Yokohama: C. Levy.
- Scott, James. 1891.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 Underwood, Horace Grant and Horace Horton Underwood. 1925. 『英鮮字典(*An*

English-Korean Dictionary)』.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Underwood, Horace G., Homer B. Hulbert, and James S. Gale. 1890. 『韓英字典한영주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Yokohama, Shanghai, Hongkong, Singapore: Kelly & Walsh, L'D.

金東成. 1928. 『最新鮮英辭典(*The new Korean-English Dictionary*)』. 京城: 博文書館.

Gale, James Scarth. 1931. 『韓英大字典(*The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 이상의 자료는 Internet Archive(<https://archive.org/>), Harvard Library(<https://hollis.harvard.edu>)와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 사전: 영인편』(2012)에서 확인.

일본어 이중어 사전

Gring, Ambrose D., and Reformed Church in the United States. 1884. *Eclectic Chinese-Japanese-English Dictionary of Eight Thousand Selected Chinese Characters*. Yokohama: Kelly and Co.

Hepburn, J. C. 1872. *A Japanese-English and English-Japanese Dictionary*. 2nd ed.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_____. 1881. *A Japanese-English and English-Japanese Dictionary*. Abridged by the Author. China: Kelly & Walsh, etc.

_____. 1886. *A Japanese-English and English-Japanese Dictionary*, by J. C. Hepburn. No place, unknown, or undetermined: Z.P. Maruya & co., limited.

_____. 1894. *A Japanese-English & English-Japanese Dictionary*. 5th ed. Tokyo: Z.P. Maruya & Co., Limited.

_____. 1897. *A Japanese-English and English-Japanese Dictionary*. 2nd ed., Rev. & Enlarged. Tokyo: Z.P. Maruya & Co., Limited.

_____. 1903. *A Japanese-English and English-Japanese Dictionary*. 7nd ed. Tokyo: Z.P. Maruya & Co., Limited.

Lemaréchal, J. M. 1904. *Dictionnaire japonais-français*. Tokyo, Yokohama: Librairie Sansaisha; M. Nössler & co.

Pagès, Léon. 1868. *Dictionnaire Japonais-Français*. Paris: Firmin Didot frères, fils et cie.

Raguet, E., and Tōta Ono. 1905. *Dictionnaire français-japonais, précédé d'un*

abrégé de grammaire japonaise. Tokyo, Paris: Librairie Sansaisha; E. Leroux.
Shimada, Yutaka. 1895. *An English-Japanese Lexicon: Explanatory, Pronouncing
and Etymological, Containing All English Words in Present Use, with an
Appendix*. Japan: M. Okura.

※ 이상의 자료는 Internet Archive(<https://archive.org/>), Harvard Library(<https://hollis.harvard.edu>), Google Books(<https://books.google.com>)에서 확인.

중국어 이중어 사전

Baller, F. W. 1900. *An Analytical Chinese-English Dictionary: Compiled for the
China Inland Mission*. Shanghai: China Inland Mission and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Baller, F. W. 1915. *An Analytical Chinese-English Dictionary: Compiled for the China
Inland Mission*. Shanghai: China Inland Mission and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Hemeling, K. and G. C. Stent. 1916. *English-Chinese Dictionary of the Standard
Chinese Spoken Language ... and Handbook for Translators, Including
Scientific, Technical, Modern and Documentary Terms*. Shanghai: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Hiller, Walter, Sir. 1910. *English-Chinese Pocket Dictionary of Peking Colloquial*.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Lemaire, Gabriel and Prosper Giquel. 1874. *Dictionnaire de poche français-chinois*.
Shangha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Lobscheid, W. and Tetsujirō Inoue. 1883. *An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Tokio
[i.e. Tokyo]: J. Fujimoto.

Medhurst, Walter Henry. 1843. *Chinese and English Dictionary, Containing All the
Words in the Chinese Imperial Dictionary*. Batavia: Printed at Parapattan.

Pétillon, Corentin. 1905. *Petit dictionnaire français-chinois; dialecte de Chang-hai*.
Chang-hai: Imprimerie de la Mission catholique.

Plusieurs Missionnaires du Sé-tch'ouan Méridional. 1893. *Dictionnaire chinois-
français de la langue mandarine parlée dans l'ouest de la Chine*. Hongkong:
Imprimeri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Tien Min, Chang, Li Ung Bing, and Zai-Ziang Zee. 1918. *Chinese-English Dictionary*:

Comprising over 3,800 Characters with Translations, Explanations Pronunciations, 9th edition, Shanghai: Commercial Press, Lit.

※ 이상의 자료는 Internet Archive(<https://archive.org/>), Harvard Library(<https://hollis.harvard.edu>), Google Books(<https://books.google.com>)에서 확인.

베트남어 이중어 사전

Bonet, Jean. 1899. *Dictionnaire annamite-français* (langue officielle et langue vulgaire). Paris: Imprimerie nationale, E. Leroux.

Emeneau, M. B., Diether von den Steinen, and John. Sherry. 1945. *Annamese-English Dictionary*. Berkeley, Calif.: Army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University of California.

Génibrel, J F M. 1893. *Vocabulaire annamite-français. Sách số tiếng Annam-Pbalangsa. Résumé du Dictionnaire annamite-français*. Saigon: Imprimerie de la Mission à Tân-Dinh.

Legrand de La Liraÿe, Théophile Marie. 1868. *Dictionnaire élémentaire annamite-français*. Saigon: Imprimerie impériale.

_____. 1874. *Dictionnaire élémentaire annamite-français*. Paris: Challamel aîné.

Nguyen, Đình Hoà. 1955. *Vietnamese-English Vocabulary*. 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Training, National Security Agency.

Trữ-ơng-Vinh-Kỷ, Petrus, J. B. 1884. *Petit Dictionnaire Français-Annamite*. Saigon: Imprimerie de la Mission, à Tân-Dinh.

※ 이상의 자료는 Internet Archive(<https://archive.org/>), Harvard Library(<https://hollis.harvard.edu>), Google Books(<https://books.google.com>)에서 확인.

3. 논저 및 기사 자료

가지 노부유키 저. 이근우 역. 2002. 『침묵의 종교 유교』, 경당.

김용덕. 2013. “메이지 초기 일본 지식인의 기독교 이해: 명육사(明六社)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9호, 218-233.

김중서. 2001. “개화기 사회문화 변동과 종교인식.” 『한국문화』, 28권, 229-250.

_____. 2005. “한국종교의 개념과 동아시아의 종교경험.” 『宗敎學研究』 24집, 35-51.

_____. 2006. “근대화와 한국 종교의 개념.” 종교문제연구소 편. 『종교와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방원일. 2021. “한국 개신교계의 종교 개념 수용 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 54호, 5-35.
- 이용주. 2012. “유교 국교화에 관한 의문.” 『양명학』 31호, 341-373.
- 이태형. 2011.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처럼 행동해야 … 왜 지금도 디트리히 본회퍼인가.” 『국민일보』(8월 8일).
- 임계유·금장태·안유경. 2011. 『유교는 종교인가』, 지식과교양.
- 임병태. 2020. “이성적인 도덕적 종교만이 순수하고 진정한 종교.” 『대학지성』(3월 22일).
- 자현 슝. 2020. “불교는 붓다를 믿는 종교가 아니다.” 『한국일보』(12월 2일).
- 장석만. 1992. 『開港期 韓國社會의 “宗教” 概念 形成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성민. 2006. “어느 종교가 진짜일까?: 정성민 교수의 <현대인을 위한 기독교변증>.” 『뉴스파워』(11월 14일).
- 정진홍. 2003. 『경험과 기억』, 당대.
- 정하림. 2022. “진정한 종교의 가치는 누가 실천하고 있는가.” 아트인사이트(5월 16일).
- 조현범. 2004. “종교와 근대성” 연구의 성과와 과제.” 『종교문화연구』 6호, 121-150.
- _____. 2018. “한국 근대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문화비평』 33호, 313-339.
- 조현범·이유나·방원일·심형준. 2019. 『근대 한국의 종교 개념사 자료 집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미간행.
- 황호덕·이상현. 2012.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영인편』, 박문사.
- 長沼美香子. 2015. “文部省『百科全書』における「宗教」.” 『言語情報科学』 13, 121-128.
- 小川原正道. 2013. “政治による「宗教」利用・排除: 近代日本における宗教団体の法人化をめぐる.” 『年報政治学』 64(1), 145-167.

4. DB자료

-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
- 조선왕조실록DB(<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한국의 지식콘텐츠(<https://www.krpia.co.kr/>)
- Google Books(<https://books.google.com>)
- Internet Archive(<https://archive.org/>)
- Harvard Library(<https://hollis.harvard.edu>)

Abstract

The Peculiarity of Usages of 'Jong-Gyo (Religion)' in Korea, 1883-1910: Rethinking the History of 'Jong-Gyo' Concept Formation

Hyoung-June Sh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ord 'Jong-Gyo [宗教]' is known as a concept that was adopted as a translation of 'religion' in Japan and spread to East Asia. Because of its novelty, the term 'Jong-Gyo [宗教]' was considered to contain the meanings of the modern concept of religion in the West. However, if you look at many expression cases of this term, you can see that 'Jong-Gyo [宗教]' is used in the meanings of 'the best teaching' or 'national religion (teaching)' depending on the meaning of each Chinese character. In particular, if you look at the cases used in newspapers and dictionaries from 1883 to 1910, it can be seen that around 1910, 'Jong-Gyo [宗教]' became dominant as the translated word for 'religion'. In this respect, 'Jong-Gyo [宗教]' is an overinterpretation to see that the modern concept of religion was used based on the use of the term 'Jong-Gyo [宗教]' in the 19th century.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e concept of 'Jong-Gyo [宗教]' was understood in light of the concepts of 'Gyo [教]' or 'Do [道]', which have been used since the Joseon dynasty. Therefore, although the term 'Jong-Gyo [宗教]' is used, it cannot be regarded as being used in its modern meanings. This trend is also found in East Asian countries with Chinese character culture (Japan, China, Vietna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history of religion concept formation in Korea.

Keywords | religion, Gyo [教], Do [道], national religion, modern concept, history of concept formation

